

신라 동해구에 대한 지형·경관 분석

안계복·황국웅

대구가톨릭대학교 자연대학 조경학과

Landscape Analysis of Geographic Features of East Sea-gateway(東海口) in Shilla Dynasty

Ahn, Gye-Bog · Hwang, Kook-Woong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BSTRACT

In order to reveal the geographical landscape's features of the East Sea-gateway(東海口), which has existed only in the era of Shilla as unique east path, we have carried out analysis of the old maps(邑誌圖) and satellite imagery, and geographical features analysis in the application of digital maps, and the result is as follows.

1. Analysis of materials from the Chosun dynasty describes landscapes called sea gates(海口) (note that this should not be capitalized); a place where the river meets the sea and the sea comes far into the land. Sea gate landscapes may have an island, but this is not a prerequisite.

2. According to the satellite imagery, the capital city of Shilla Dynasty had five passages. Four of them are broad corridors, but one of them is narrow. The east side of the capital city is blocked by mountains and there was an important path which leads into the East Sea.

3. According to the cross section of the mountains, there is the only one East-path. There was no alternative way. There was only one way-out to the east side from the capital city. This is the unique path which reaches a length of 28km. Judging from this, it seems that this path was called the East Sea-gateway.

4. The landscape of the East Sea-gateway was shaped like the letter "V" and reached to the landscape of the sea gate. However, the route was blocked - part by the mountains, and also the part in the crisis of loss of path-landscape which has lost its own character of closure as several valleys are merged together.

Key Words: King Munmu's Tomb, Gameun-temple, Seokgulam, Sea-gateway, AutoCAD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고대(古代)에 많이 쓰이던 용어가 현대 들어서 없어진 경우가 여러 가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별서(別墅), 별업(別業)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해구(海口)'도 같은 경우다. 海口라는 용어는 신라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쓰였던 단어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 속종 27년(1701년) 3월 20일조에 의하면 '충청도 서산 땅의 큰海口에 있는 영공암(永公巖)이 이달 초 6일에 안개 속에서 갑자기 벼락으로 부서졌다'라는 기록과 같은 여러 기록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비교적 활발하게 쓰이던 용어가 어떤 이유로 없어지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자. 우선 해안선 매립으로 즉 해안(Waterfront)개발이 되면서 '하구언'이라는 용어는 활발히 쓰이는 반면에 '해구(海口)'라는 용어는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물류의 흐름이 육상보다는 바다와 하천을 통한 수송이 대단히 중요하여 해구가 중요했지만, 현대에는 육상교통의 발달로 해구의 중요성이 상실되었다.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해구가 전쟁과 방어를 위한 중요 요충지가 되었지만 현대에는 신무기의 개발로 해구의 중요성이 감퇴된 까닭에 海口라는 용어가 사장되었다.

그래서 요즘 "해구"라고 하면 바다 깊숙한 곳에 좁고 긴 해저 지형을 의미하는 단어인 해구(海溝)를 우선 떠올리게 된다. 그럼 海口란 무엇인가? 이희승(1991)의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海口란 '바다의 후미진 곳으로 들어간 어귀'라고 되어 있다. 후미지다고 하면 으스스하도록 깊숙한 곳을 말한다. 따라서 그림 2의 A와 같이 海口는 깊숙하게 들어간 어귀라야 되는데, 그림 1의 A, B는 해안선이 깊숙히 들어가지 않고 거의 一자 모양이다. 따라서 이곳을 해구라고 부르지 않고 강구(江口)라고 부르는 것 같다. 경북 영덕군에 있는 江口라는 동네는 특이한 "해안-하천" 모양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임을 알 수 있다.

海口와 江口는 구분이 어느 정도 되었지만 포구(浦口)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浦口란 '배가 드나드는 개(조수가 드나드는 곳)의 어귀'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海口와 浦口가 형태적으로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한한대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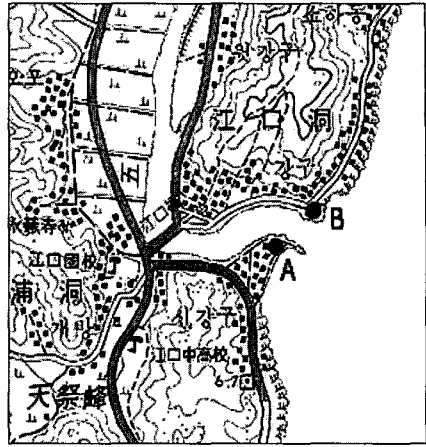


그림 1. 경북 영덕군 강구(江口)

(장삼식 1989: 1021)을 찾아 봐도 浦(개·포)란 「大水有小口別通曰浦」라고 하여 '큰 물이 조그만한 입구를 가지고 있어 별도로 통하는 것을 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역시 海口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 海口에 대한 정확한 형태적 정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해구(東海口)는 왜 중요한가? 삼국사기에 海口에 관한 기록이 2회, 동해구에 관한 기록은 단 1회다. 만약 기록이 많았더라면 해구와 동해구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이 적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어떤 것 때문에 동해구라고 하였는지 아니면 별 의미 없이 동해구라고 했는지 알 수 없다. 삼국사기에 동해구가 기록된 곳은 문무대왕을 '동해구 대석상(大石上)에 장례를 치루었다'는 곳이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생기는 의문이 여러 가지다. 어떤 특별한 것 때문에 동해구라고 하였을까? 왜 그 곳만을 동해구라고 하였을까? 다른 곳은 동해구가 될 수 없었을까? 신라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동해구에다 감은사, 이견대, 대왕암을 만들었을까? 등등 여러 가지의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신라인들이 갖고 있었던 정신적인 측면은 차후 연구과제로 돌리고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측면, 즉 지형 경관적 특징을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즉 동해구는 신라왕경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지형·경관적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해구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분석 증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海口의 형

태적 특징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삼국사기의 기록에서부터 조선왕조실록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海口의 내용을 먼저 찾아서 분석하였다. 그 다음 조선시대에 간행된 읍지(1871~1899)를 찾아 잘 그려진 해구 그림이 있는지를 찾았고, 이것과 일치하는 1/50,000 지형도와 비교하여 장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海口의 형태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그 다음 연구과정은 왜 그 곳만이 동해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해구와 동해구를 구분하는 분석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공위성사진과 1/50,000 지형도 분석, 그리고 수치지도를 활용한 투시도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 연구과정으로는, 오직 신라시대에만 존재했던 동해구(東海口)의 지형적 경관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1/25,000 수치지도를 기본 지도로 사용하여 AutoCAD 2005와 Land Development DeskTop, AccuRender를 사용하여 지형 모델링과 지형 분석, 투시도 작성 등을 실시하였다. 육지에서 대왕암을 바라보는 투시도 분석은 1/25,000 수치지도의 등고선에서 높이값을 이용하여 AutoCAD Land Development DeskTop을 사용하여 30m × 30m 크기의 3Dface로 지면의 모양을 만들었다. AutoCAD의 Dview 명령어를 사용하여 감은사의 앞쪽 들판에서 대왕암을 바라보는 투시도를 만들었으며, 36mm 카메라를 사용한 것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분석하였다. 지형 단면도는 토함산의 주능선 방향으로 산의 정상부를 따라서 단면선의 위치를 정하여 지형 단면도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치지도를 사용하여 경관분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거시적인 경관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수km 해구를 답사에 의한 사진촬영과 같은 보편적인 경관분석방법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수치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치지도를 활용하면 현장에서 부딪히는 장애물 없이 시점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편의성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채택하였다.

II. 동해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신라 동해구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수증대왕릉, 감은사, 석굴암 등의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동해구이

다. 동해구에 대한 주장은 황수영(1978, 1989, 1993, 1994)에 의한다. 감은사, 석굴암이 육진왜병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며, 감은사, 이견대, 대왕암 일대가 신라에서 가장 신성한 지역인 동해구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정영호(1992)의 연구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단지 사례 연구 대상지가 장항리사지와 골굴암이 선행 연구에 비해 추가되어 있지만, 이 두 사찰이 동해구와 맺고 있는 구체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신호웅의 연구도 마찬가지다. 신호웅(1986: 49-50)은 동해구 大石에 장례를 치름으로써 세계에 유례없는 해중릉이 조영되는 역사적 배경과 아울러 감은사, 이견대, 만파식적 설화를 검토하였으나, 선행 연구에 비해 특별한 결과는 없었다. 대왕암이 조영된 것은 통일을 전후하여 확산된 對倭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문무왕의 유언, 신라가 수행한 對倭 전쟁사의 흐름, 그리고 신라의 해상군사력 등을 고찰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결론으로 생각되어진다. 지금까지의 연구사를 통해서 볼 때 황수영 이후 동해구에 특별한 연구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낙 정설로서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경주사학회(1984: 168-171)는 문무대왕이 가신 호국의 길을 찾기 위해 두 세 차례 답사한 자료를 실었다. 경주와 동해안을 가로 막고 있는 동대산맥을 넘어서 동해로 나갈 수 있는 통로는 ① 사라재(180m), ② 감제인 시령(265m), ③ 추령(320m), ④ 동산령(460m)이 있다. 이 가운데 추령을 모차골(마차골)에서 기림사로 통하는 길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제안하였다.

III. 동해구에 대한 지형·경관 분석

1. 해구(海口)의 형태적 특징 분석

삼국사기 35권 지리지에 '해구군은 원래 고구려의 혈구군으로서 바다에 있었는데 경덕왕이 개칭하였다. 지금의 강화현이다¹⁾'라는 기록이 있다. 강화도를 海口로 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만으로는 해구의 형

태적 특징이 명확히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읍지(1871~1899), 1/50,000 지형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구에 대한 형태적 특징을 찾고자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을 조사해 본 결과 세종, 세조, 성종 연간에만 21건²⁾의 해구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가운데 해구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고 읍지도에도 자료가 남아 있는 서천포, 당진포, 그리고 삼척포에 대한 조사 내용만 우선 게재하고자 한다.

1) 서천포 해구

세종 20년(1438) 9월 10일조에 '서천은 해구(海口)와 가까워서 바로 충청도에서는 적을 받는 첫 길목이 될 것 입니다'란 기록이 있다. 이 기록만으로는 해구가 장구만(그림 2의 A)을 의미하는지 금강 하구(그림 2의 B)를 해구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성종 21년(1490) 9월 28일조에 서해의 지형과 방비 대책을 적은 도순찰사 성건(成健)의 서계(書啓)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옥구·군산포(群山浦)와 서천은 단지 1포(浦)만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의 바닷길은 겨우 수리(數里) 남짓합니다. 서천포는 해구에 마주하고 있고, 군산포는 약간 내지(內地)에 있어, 형세로 보면 서천포가 첫길에 있으므로 군산포는 폐지할 만합니다...〈중략〉... 용안(龍安) 덕성창(德城倉)은 해구와의 거리가 요원합니다". 이 글과 서천포 읍지도를 비교해 보자. 도순찰사 성건의 주장은 군산포와 서천포가 근접하기 때문에 성종에게 장계를 올려 군산포를 폐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서천 읍지도(그림 3)를 보면 서천읍성과 서천포의 위치가 다르다. C가 읍성이고 D가 서천포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 3의 E, 그림 2의 B 지역을 해구라고 칭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용안의 덕성창이 해구와 멀다고 했는데, 현재 전북 익산시 용안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구 B로부터 금강 상류 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서천포 해구 조사를 통해 나타난 특징은 큰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河口)에 섬이 있는 곳을 해구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당진포 해구

세조 3년(1457) 1월 16일조에 의하면 삼도 도순찰사 박강(朴薑)과 부사 구치관(具致寬) 등이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여러 진(鎭)과 여러 포(浦)를 순찰하고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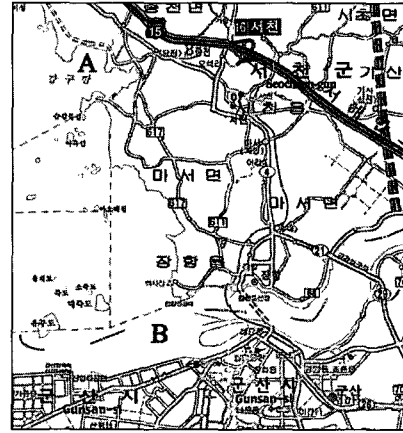


그림 2. 서천포와 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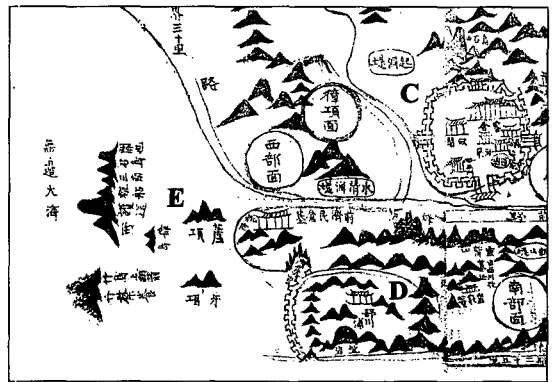


그림 3. 서천포 읍지도

연히 해야 할 일을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와 충청도 두도의 해구(海口) 중앙인 난지도(難地島)에 당진포 및 대진(大津)의 병선으로써 함쳐 정박하도록 하자"는 기록이 있다.

현대 지도 그림 4와 읍지도 그림 5을 서로 비교하기 편하도록 A, B, C, D를 동일한 지점에 표기하였다. A, B 두 지점을 서로 비교해 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읍지도는 조선시대 각 군현에서 읍지를 편찬하면서 지도를 그렸는데, 전문가가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형의 배치는 현대의 지도와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초점이 되고 있는 난지도(A)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개념 중심적으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입구가 너무 넓은 아산만(D)보다는 당진포(B) 앞바다의 해구가 세조 때 지칭하는 해구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의 C는 서산군 태안반도의 산맥과 만의 길쭉함이 그대로 잘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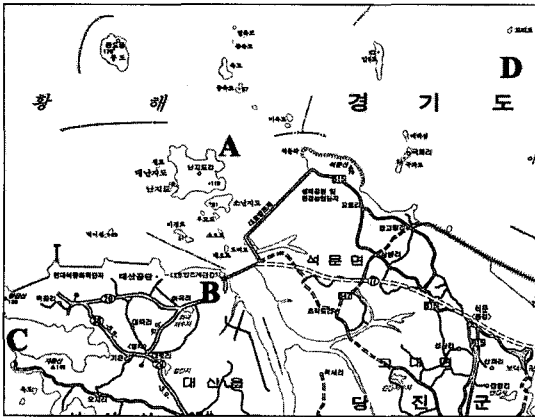


그림 4. 당진포와 해구



그림 6. 삼척 1/50,000 지도



그림 5. 당진포 읍지도

려져 있다. 당진포 해구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은 아산 만과 같이 입을 너무 넓은 곳은 해구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강처럼 좁고 긴 만과 바다가 만나는 곳을 해구라고 지칭한 것이며, 서천포 해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앞쪽에 섬이 있는 경관이 해구이었다.

3) 삼척포 해구

성종 23년(1492) 1월 8일조에 의하면 동지사(同知事) 이극돈이 말하기를 “삼척포(三陟浦)는海口에 있기 때문에 더욱 성을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림 6은 삼척 지형도 1/50,000을 스캐닝한 그림이다. 그림 6을 보면 삼척항에 방파제를 쌓고 해안 매립이 이루어져 직선적인 해안선도 보이지만, 그래도 다른 포구에 비해 옛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

삼척포 진성은 현재 오분리 고산성과 정상리 육향산 주위가 그 위치다. 이 곳은 오십천 하구에 위치하여 수

백 척의 전선이 정박할 수 있던 자연 항구였다. 이 지역은 동해안의 중간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오십천을 따라 서쪽으로 올라가면 남한강 상류인 골치천과 교차하는 동서남북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삼국시대 초기부터 신라와 고구려는 삼척(실직)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세조 14년(1468) 6월 4일조에 ‘강릉의 안인포(安仁浦)는 삼척과 고성 사이에 있고, 해구가 통활(通闊)하여 병선이 정박할 만합니다.’라는 기록이나 성종 16년(1485) 4월 7일조에 ‘월송포와 오포, 칠포의 배를 대는 곳은 수세가 매우 사나워서 모래가海口를 메워 배들이 육지에 있습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볼 때 포항 북쪽의 동해안은 하천이 짧아 좋은 해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삼척포의 해구는 서천포나 당진포와 또 다른 형태적 특징을 보인다. 해구에 섬이 없다. 따라서 해구가 되기 위해서는 섬이 필수조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동서해안을 막론하고 해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것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의문은 왜 그 곳만을 동해구라고 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2. 왜 그 곳만이 동해구이었을까?

1) 신라왕경의 주변 지형 분석

인공위성사진을 통해 신라왕경 주변지역의 지형적 특징과 東海口의 특징을 찾기 위해 만든 것이 그림 7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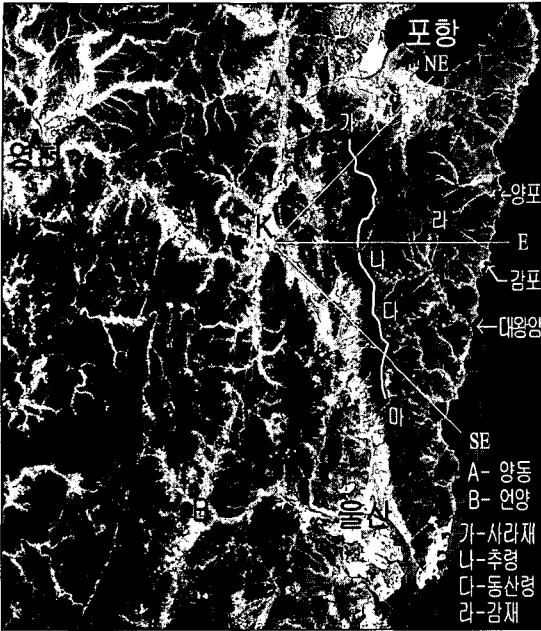


그림 7. 신라왕경 주변지역의 지형적 특징 분석도

다. 그림 7에서 검게 나타나는 것이 산지이며, 흰색으로 밝게 나타나는 것이 평야나 하천이나 길이다. 그림 7의 「가-나-다-마」로 이어지는 선이 동대산맥이다. 경주(K)의 동쪽을 동대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형상이다.

신라왕경(K)을 중심으로 밖으로 희게 뻗어 나가는 선이 냇이다. 따라서 네 개의 큰 통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한 통로는 위성사진에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동해로 나아가는 통로(K↔대왕암)가 하나 더 있다. 결국 5개의 통로가 있었던 셈이다.

첫 번째 통로는 서쪽으로부터 접근하는 통로로 「영천↔K」 구간이다.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놓여진 곳이며, 백제 군사들이 쳐들어오던 통로다. 선덕여왕의 옥문지 설화도 이 통로에 있다. 두 번째 통로는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언양(B)↔K」구간인데 倭의 침입로와는 별로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통로는 울산으로부터 올라오는 통로다. 신라시대 때 이곳에 관문성을 쌓아 이 통로를 지켰다. 네 번째 통로는 경주 영일만을 잇는 「K↔A↔포항」구간이다. 신라왕경의 북쪽 통로이다. 삼국사기 자비왕 2년(459)의 기록³⁾에 의하면 왜가 신라왕경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해구에 병선 백여척을 이끌고 와서 월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왜는 북으로

도주했고, 신라는 북쪽에 있는 해구까지 쫓아가 절반을 익사시켰다. 삼국사기에는 이 해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지만, 이 기록이 「K↔A↔영일만」구간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형산강이 흘러내리는 영일만은 신라의 북쪽 통로와 연결되는 해구이었다. 포항 북쪽으로 는 큰 강이 흐르는 해구다운 해구가 없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통로는 그림 7에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왕암으로 연결되는 통로이다. 인공위성사진으로는 뚜렷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구가 된 것은 특별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는 동쪽 바다로 통하는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이요, 사상적으로는 신라인들의 동녘신앙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대왕암 주변지역 지형·경관 분석

동해구에 관한 첫 주장은 황수영에 의한다. 토함산 동면(東面) 크고 작은 계곡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해천(東海川)이 되고 마침내 대종천(大鐘川)을 이루어 동해로 들어가는 그 어귀가 곧 동해구이니, 오늘의 경주군 양북면 용당리(감은사)와 봉길리(문무대왕암), 그리고 감포읍 대본리(이전대) 등을 포함한 해륙일원을 가르킨다(황수영 1993: 20). 이 주장에는 왜 그 곳만이 동해구이었던가? 하는 의문에 답이 없다. 또 다른 의문은 동해구에서의 구(口)가 황수영(1994: 39) 주장처럼 과연 입(口: Gate)의 개념이나 아니면 입구(入口: Gateway)의 개념이나 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가졌던 의문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경주에서 정동향에 가까운 양포(그림 8의 A)는 왜 동해구가 될 수 없으며, 감포(그림 8의 B)도 대왕암보다는 더 동쪽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갯바위들」이라는 작은 섬이 있는 포구인데 왜 동해구가 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이다. 그러나 전항에서 분석한 서천포, 당진포, 삼척포의 해구를 분석한 것을 밀바탕으로 이 곳 지형도를 보면 양포나 감포가 동해구가 될 수 없음은 한 눈에 알 수 있다. 큰 강이나 혹은 하천이 흐르지 않는 만(灣)이기 때문에 海口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반면에 감포읍 대본리 일대(그림 8의 C)를 보면 海口와 비슷해 보이지만, 과연 海口와 같은 형태적, 경관적 특징을 갖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 이유는 우선 만(灣)의 발달이 좀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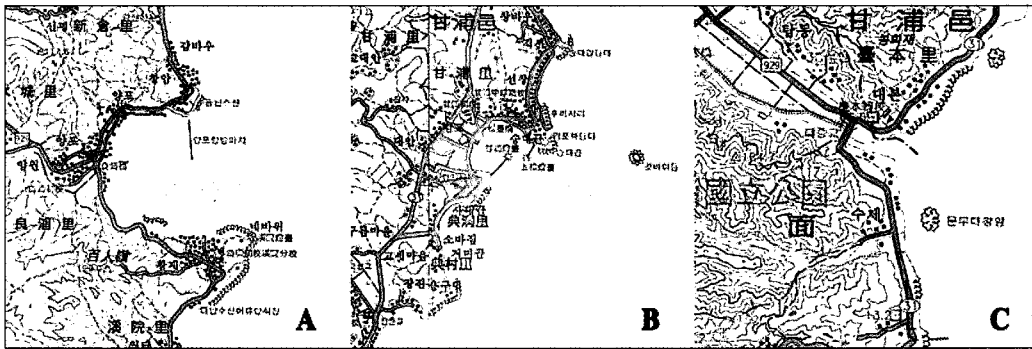


그림 8. 양포리, 감포리, 대본리의 1/50,000 지도

해 보이며, 해구 앞에 문무대왕암이라는 섬이 있지만 좀 빛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을 검증하기 위해 시점(視點)을 대종천이 흘러나오는 계곡 안쪽에서 바다 쪽으로 바라는 투시도를 만들었다. 투시도는 Autodesk Land Development DeskTop을 사용하여 1/25,000 수치지도의 등고선 높이 값을 근거로 하여 불규칙삼각망(TIN)을 만들고, 이를 시각화 하여 지면의 모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산림지역에는 녹색, 들판 지역에는 연두색, 하천에는 청색으로 구분하였다. AutoCAD의 Dview 명령어를 사용하여 들판의 안쪽에서 대왕암을 바라보는 투시도(그림 9)를 만들었다. 이 투시도를 만들 때, 수치지도의 등고선과 해안선, 하천 실폭선 등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다만 지도에 표시된 하천의 폭과 실제 하천의 모습이 물이 흐르는 유량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동절기 갈수기의 대종천은 현재의 투시도보다 더 폭이 좁게 흐른다.

황수영(1993: 22)에 의하면 감은사 남단에 높은 석축을 쌓고 돌계단을 연결되어 있는 것은 선착장 유구라는 주장이다. 선착장이 있었다면 감은사 앞쪽으로 물길

흘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감은사 조사발굴보고서(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7: 138-140)는 이 유구를 연못과 관련된 석축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견해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연못은 아래층에 방수를 위한 점토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곳의 발굴단면도를 보면 모래층이나 잔 자갈층이 있고 그 위에 굵은 자갈층이나 점토층이 나타나 있다. 모래층이나 잔 자갈층은 물길이 이곳으로 흘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연못으로 보기 힘든 것이 아닌가한다. 어찌하였든지 현재 감은사 앞의 도로가 개설되고 제방이 쌓여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물길이 신라시대의 물길이라고 보기 힘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1/50,000 지형도를 보고 과연 해구 경관일까? 하는 의문은 그림 9의 투시도를 통해 해소되었다. 신라의 동약 토함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대종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대왕암이 바라다 보이는 훌륭한 해구 경관이 펼쳐지는 것이다.

3. 동해구의 지형·경관 특징 분석

1) 동대산맥 단면도 분석

신라왕경으로부터 동해로 나아가는 출구로서의 東海口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동대산맥을 따라 AutoCAD로 단면도를 잘랐다. 단면도를 자르는 기준 선은 그림 7의 「가-나-다-마」선인데, 산맥을 따라 주요 능선과 산봉우리를 기준으로 삼았다. 단면도를 자르는 선을 극단적인 양 끝점을 중심으로 직선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왕경으로부터 동해에 이르는 길에 대한 분석이며, 능선을 넘지 않고는 동해에 다다를 수가 없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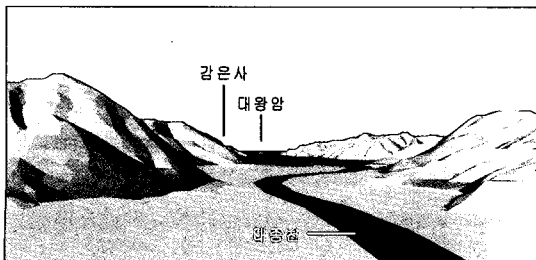


그림 9. 동해구의 3차원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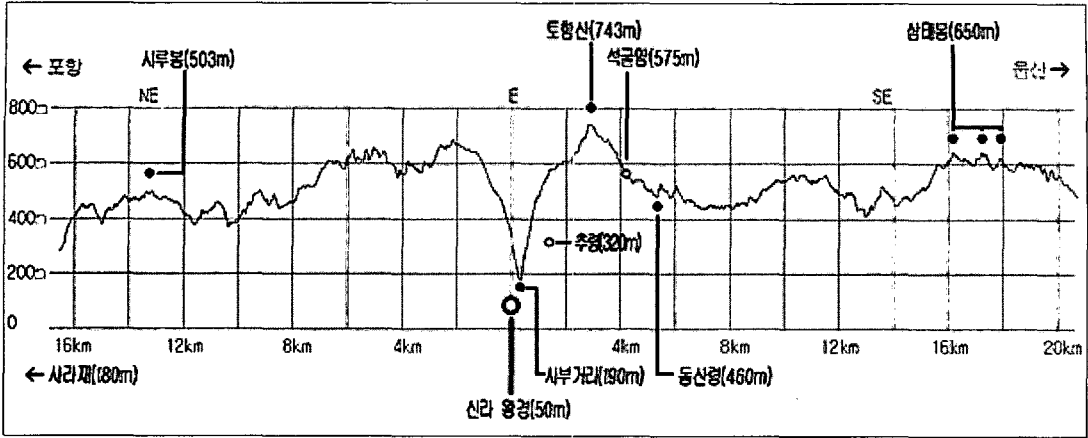


그림 10. 동대산맥 단면도 분석

문에 능선과 산봉우리를 기준선으로 하였다.

동대산맥의 단면도는 그림 10과 같다. X축은 거리를 나타내고 Y축은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나타낸다.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X축과 Y축의 축척을 다르게 하였다. 해발 약 50m에 위치한 신라왕경을 중심으로 정동(E), 북동(NE), 남동(SE) 방향을 먼저 잡았다. 방향이 지나가는 위치는 그림 7에 그려진 선과 같다. 신라시대 때 8방향으로 나누어 천문을 관측하였기 때문에 「북동-정동-남동」의 구간이 동쪽인 것이다. 따라서 북동과 남동은 동쪽이 될 수 있는 최대 한계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본다면 포항쪽에 있는 사라재(180m)와 울산 쪽에 있는 삼태봉(650m)은 신라의 동쪽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북쪽과 남쪽에 있는 것이 된다.

신라왕경 반월성을 중심으로 동쪽을 바라보면 동해로 통하는 출구는 시부거리(190m)로 통하는 길 외에는 대안이 없다. 반월성으로부터 궁궐 동쪽에 있었던 연못(宮東池)을 지나, 낭산을 지나고 명활산성에 이르면 동쪽으로 통하는 「위가 넓은 V자형 계곡」이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시부거리를 지나 추령(320m)까지는 오르막 계곡이며, 이를 넘어서면 대왕암까지 동쪽으로 통하는 계곡이 내리막으로 펼쳐지는데 총 길이가 도상수평거리로 약 28km에 달한다. 특징 있는 계곡이 아닐 수 없다.

경주사학회(1984)는 경주와 동해안을 가로 막고 있는 동대산맥의 통로로 ① 사라재(180m), ② 감재인 시령(265m), ③ 추령(320m), ④ 동산령(460m)이 있다고

하였다(그림 7 참조). 그러나 이 가운데 東海口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③번제인 시부거리-추령 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라재는 왕경으로부터 북동쪽보다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감재인 시령(그림 7의 라)은 동대산맥의 주된 줄기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해구 주 통로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양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대왕암하고는 거리가 멀다. 동산령을 통하는 코스가 동해구 통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경주로부터 울산으로 내려가는 길, 즉 동쪽이 아닌 동남쪽 통로를 따라가다가 불국사 쪽으로 올라와서 고개를 넘는 길이라 동쪽으로부터 너무 벗어난 길이다. 둘째 동산령은 해발 460m로 추령 320m 보다 140m가 더 높은 고개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셋째 그림 10에서 추령과 비교해 보면 계곡형 통로가 발달하지 못한 곳이다. 따라서 동해구의 통로는 시부거리-추령으로 통과하는 통로가 유일한 통로다.

소 결론적으로 동대산맥의 단면도를 분석해 본 결과 신라왕경의 동쪽 통로는 하나밖에 없다. 반월성→궁궐 동쪽 연못(宮東池)→황룡사→낭산→명활산성에 이르면 동쪽으로 통하는 계곡이 시작되는데, 시부거리를 지나 추령까지는 오르막 계곡이며, 이를 넘어서면 대왕암까지 동쪽으로 통하는 계곡이 내리막으로 펼쳐지는데 총 길이가 약 28km에 달하는 유일한 통로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구”라고 하면 반월성에서 대왕암까지 한 통로가 된다. 따라서 동해구의 의미는 입구(gate)가 아닌 긴 통로(gateway)로서의 동해구 개념인 것이다.

2) 동해구 통로경관에 대한 믿음

이상과 같은 지형 분석을 종합해 보면, 경주왕경으로부터 동쪽 바다로 나가는 길은 하나였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것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통로였다. 왕경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모두 산으로 막혀 있고 오직 하나의 출구만 존재하였다. 동해의 용이 되어 불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수호하시겠다고던 문무대왕의 장엄한 장례행렬도 이 통로를 지나갔을 것이다.

신라는 동쪽을 신앙적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나라였다. 궁동지(宮東池)와 용왕전, 궁궐 동쪽에 있는 낭산의 중요성, 동천(東泉), 동악(東岳), 동악신(東岳神), 동해용, 감은사 금당 동쪽 구멍 등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상이나 문화적인 차원을 넘어선 신앙적 차원의 믿음의 국가였다. 그러나 이강래(2004: 34)는 古代 倭는 신라에게 무척 두려웠던 존재였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삼국사기 지마왕 11년(122) 4월조에 '거센 동풍이 불어와 나무가 꺾이고 기와가 날아가자 대규모 왜병이 쳐들어 온다는 헛소문을 듣고 앞 다투어 산골짜기로 피난하였다'라는 기록을 들고 있다. 이러한 오해는 신라인들의 동녘에 대한 믿음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신라가 동양 最古의 천문대를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별자리의 움직임으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물론 해의 일식이나 혜성의 움직임도 관찰하였지만, 새벽녘에 동쪽에 밝게 빛나는 별인 금성(太白, 셋별)도 아주 중요하게 관찰을 하였다. 태양과 달을 뺀 하늘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금성이 신라인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별이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태백이 17회나 기록되어 있다. 박창범 라대일(1994: 180)의 연구에 의하면 679년 8월 10일 4시 3분에서 5시 9분 사이에 금성이 어떻게 달에 들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삼국사기에서 여기에 관한 기록(太白入月)에 의한 결과는 각각 천존의 죽음으로 연결되고 있다. 여기에 관한 연구는 좀 더 해 봐야 되지만 이와 유사한 기록이 더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흥덕왕 11년(836년) 7월에 금성이 달을 범하고(太白犯月) 12월에 왕이 별세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신라인들이 동녘에 대한 어떤 믿음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3) 동해구 통로경관에 대한 분석

이렇게 의미 있는 약 28km에 달하는 통로경관을 분석하기 위해서 9개소의 투시도를 선정하였다. 선정 방법은 명활성에서 대왕암에 이르는 동해구 통로에 대한 시선 높이 2m에서의 약 3분짜리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 경관의 변화를 파악한 다음, 이 가운데 특징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경관 46 장면의 정지영상을 얻은 다음, 이 가운데서 다시 9 장면을 골라 투시도를 작성한 것이 그림 11이다.

경관 ①: 신라왕경으로부터 동궁이었던 안압지를 지나서, 경주의 진산(鎭山)인 낭산을 지나 좀더 동쪽으로 오게 되면 동해구 통로경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다다르게 된다. 좌측에 보이는 산이 신라의 북악(北嶽)인 소금강산이며, 우측에 보이는 산이 신라의 동쪽 통로를 지키는 명활성이다. 실성왕 4년(405년)과 눌지왕 15년(431년)에는 왜가 명활성을 공격했지만 대패한 적이 있고, 자비왕 18년(475년)에는 왕이 이곳으로 이주해 올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다. 경관적으로 보면 지평선(스카이라인)이 완만하게 넓은 V자형으로 공간의 깊이감을 더하고 있다. 스카이라인에서 중앙부에 낮은 부분이 동쪽 하늘이다. 이 동녘 하늘에서는 일출과 월출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태백별일 등과 같은 놀라운 경관이 연출되기도 하던 곳이었다. 또한 혜성이 동쪽 혹은 동북쪽 하늘에 나타났다는 기록⁴⁾도 여러 번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신라시대 자주 바라다 보아야만 하는 중요한 시선축을 이루는 경관이다.

경관 ②: 지점 ①에서 명활성을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가기 위해 동북동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동남동 방향으로 내려와 동쪽으로 나아가면 덕동호에 이른다. 경관 ①에서 원경으로 보이던 동대산맥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 투시도는 현재 도로 위치에서 작성한 것이지만, 덕동호가 없었던 시절의 계곡 길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동대산맥이 더 장엄해 보였을 것이다. 게다가 오른쪽에 보이는 토함산 줄기는 엄청난 장신이었던 탈해왕의 전설이 깃든 곳이기도 더더욱 장엄해 보인다. 그러나 산맥에 의해 막힌 경관이 완전히 막아놓은 경관이 아니라 시부거리와 추령에 의해 동해로 터져 있는 경관이다. 어떤 신비의 세계로 이끌림을 유도하는 분위기의 경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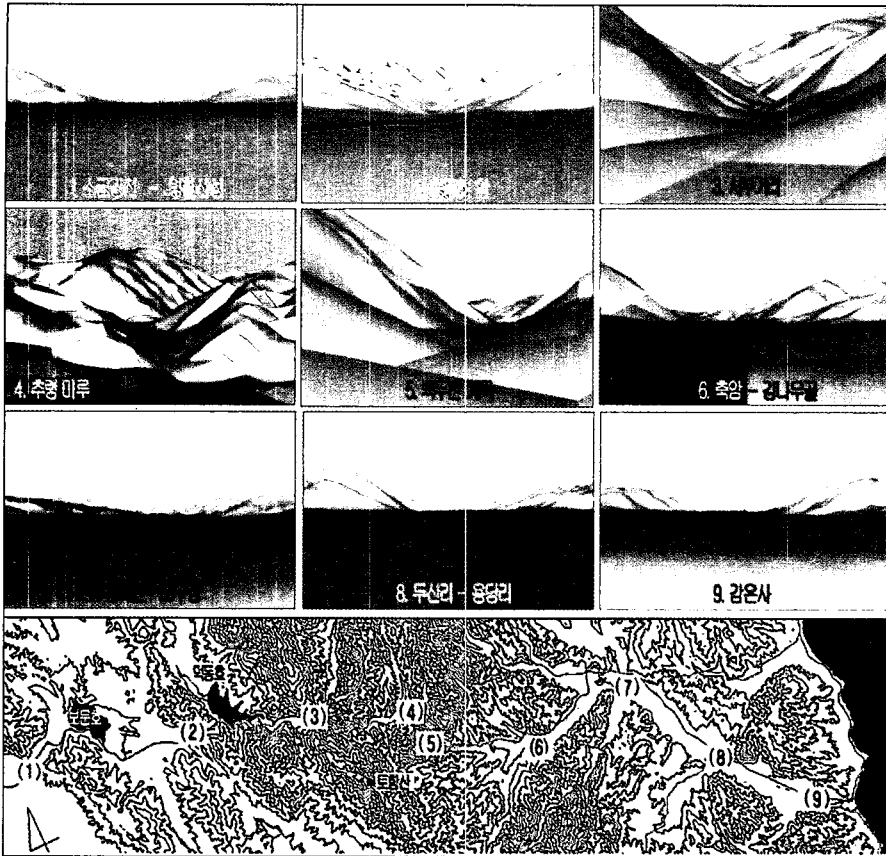


그림 11. 동해구 경관 투시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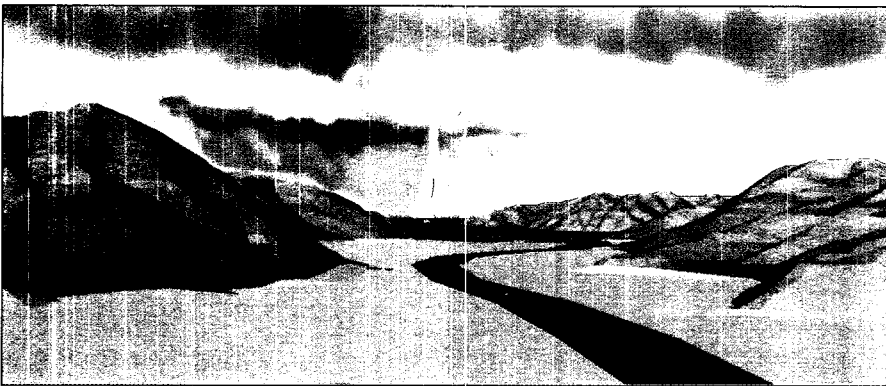


그림 12. 동해구 용오름 상상화

경관 ③: 포항 영일만 시루봉(503m) 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내려오던 동대산맥의 흐름은 이곳 시부거리를 지나 다시 힘차게 토함산(743m)으로 올라가 울산 삼태봉(650m)으로 흐르게 된다. 오르막으로 된 V자형 계곡

으로 된 좁은 통로 경관이다.

경관 ④: 오르막으로 된 V자형 계곡 경관은 추령마루(320m)를 지나면 내리막으로 변해 동해로 내려가게 된다. 내리막으로된 V자형 계곡 경관은 몇 번의 산모퉁

이를 돌아서 내려가야 한다.

경관 ⑤: 추령을 지나서 대중천과 만나게 되며 연속된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 좌측에 백두산이 있다. 백두산을 지나면 지형이 노루목처럼 생겼다고 하는 장항(獐項)리인데 신라시대의 절이 있다. 아직 논밭이 없는 내리막 V자형 계곡 경관이다.

경관 ⑥: 축암-감나무골 경관이다. 토함산 여러 계곡에서 흘러나온 하천이 이곳에서 모여 하나로 흘러가게 된다. 하천과 논밭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주변의 산세가 낮은 구릉으로 변해 가지만 넓은 V자형 계곡이 계속되고 있다.

경관 ⑦: 동매산-포구정에서 하류 쪽으로 바라본 경관이다. 기림사가 있는 신라 남악인 함월산으로부터 흘러내린 물이 다시 이곳에서 만나는 곳이다. 넓은 V자형 계곡이 더 풀어져 평지가 넓어지고 최소한의 위요만 남긴 경관이다. 어쩌면 통로로서의 기능이 상실할 정도로 위요성도 약해졌고 공간도 여러 계곡이 만나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아졌다. 이러한 공간의 나약함 속에서도 돋보이는 것은 동북 방향에서 동남방향으로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대왕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경관 ⑧: 두산리-용당리 경관이다. 다시 통로 공간이 좁아지면서 넓은 V자형 경관의 끝부분에 동해가 보이기 시작하는 위치다.

경관 ⑨: 감은사지가 있는 앞쪽 들판에서 동해를 바라본 경관이다. 신라왕경의 동쪽 출구를 통해 바다에 다 다르면 이와 같은 해구 경관이 펼쳐진다. 지금은 도로 개설로 인해 시점을 좀 더 높여야만 이러한 경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은사지 발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감은사까지 충분히 배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물길이 다르다. 물길이 좌측으로 흘러야 감은사에 배를 댈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9가지의 경관을 요약해 보면, 넓은 V자형 통로경관 → V자형 통로경관 → 넓은 V자형 통로경관을 거쳐 마지막 목표인 해구 경관에 다다르는 28km에 달하는 통로 경관이다. 그러나 중간에 산맥에 의해 막힌 경관도 있었으며, 다소 공간이 넓어지고 단 곳으로 통하는 곳도 있었지만 하나의 훌륭한 통로경관이다.

그림 12는 그림 9에다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합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려 넣은 것이다. 문무대왕이 용이 된

것은 동해구 큰바위에다 장례를 치른 후 동해의 용오름 현상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동해구란 일출, 월출, 금성 등을 관찰하면서 동녘하늘을 주시하면서 살았던 신라인들이 장례를 내다본 그 통로로서의 의미가 깊다고 할 것이다.

IV. 결과 및 고찰

신라시대에만 존재하였던 유일한 동쪽 통로였던 동해구에 대한 지형 및 경관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읍지도 분석, 인공위성사진 분석, 수치지도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해구(海口)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천포 해구, 당진포 해구, 그리고 삼척포 해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강(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섬이 있으며, 바다가 깊숙이 들어간 형태로 된 곳을海口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섬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섬이 있는 곳이 많다. 또한 아산만처럼 만(灣)의 입구가 굉장히 넓은 곳은 해구로 여기지 않았다.
2. 인공위성사진을 통해 신라왕경 주변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분석해 본 결과 신라왕경은 다섯 통로를 가지고 있었다. 네 통로는 크고 넓은 통로이었지만, 한 통로는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고 가는 통로였다. 신라왕경은 북동쪽으로부터 남동쪽까지 산맥으로 완전히 막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구가 된 것은 특별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물리적으로는 동쪽바다로 통하는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이요, 이념적으로는 신라인들의 동녘신앙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대왕암 주변지역의 지형과 경관을 분석해 보면 동해구가 될 수 있는 곳은 현 대왕암이 있는 대분리 밖에 대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왕경으로부터 더 정동쪽에 있는 양포나 감포가 동해구가 되지 못한 이유는 해구로서 갖추어야 할 하천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대분리 지형도를 보면 해구 경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이를 투시도 분석을 해보면 훌륭한 해구 경관이 펼쳐지는 곳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신라의 동해구는 이곳 말고 다른 곳이 있을 수

없다.

4. 동대산맥의 단면도를 분석해 본 결과, 신라왕경의 동쪽 통로는 하나밖에 없었다. 반월성 → 궁궐 동쪽 연못(宮東池) → 황룡사 → 낭산 → 명활산성에 이르면 동쪽으로 통하는 계곡이 시작되는데, 시부거리를 지나 추령까지는 오르막 계곡이며, 이를 넘어서면 대왕암까지 동쪽으로 통하는 계곡이 내리막으로 펼쳐지는데 총 길이가 약 28km에 달하는 유일한 통로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구”라고 하면 반월성으로부터 대왕암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해구의 의미는 입구(gate)가 아닌 긴 통로(gateway)로서의 동해구 개념인 것이다.

5. 경주왕경으로부터 동쪽 바다로 나가는 길은 하나였다. 이것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통로였다. 왕경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동쪽은 모두 막혀 있고 오직 하나의 출구만 존재 하였다. 동해구 통로경관은 넓은 V자형 통로경관 → V자형 통로경관 → 넓은 V자형 통로경관을 거쳐 마지막 목표인 해구 경관에 다다르는 구조다. 하지만 중간에 산맥에 의해 막힌 경관도 있었으며, 여러 계곡이 합쳐지면서 폐쇄성이 떨어지는 곳도 있었지만 유일한 통로경관이었다.

본 연구는 신라 동해구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 수년 동안 진행되어온 연구결과 가운데 물리적인 측면만을 다룬 논문이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앞으로 동해구가 설립된 배경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이 있어야 하며, 신라인들의 동녘신앙에 대한 자료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논문으로 발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왕암의 전통조경적 해석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주 1. 海口郡 本高句麗穴口郡 在海中 景德王改名 今江華縣.
 주 2. 세종 11년-2건, 20년-1건, 22년-1건, 지리지-3건, 세조 2년-1건, 3년-2건, 5년-1건, 14년-1건, 성종 12년-1건, 16년-3건, 19년-1건, 21년-2건, 23년-1건, 25년-1건으로 조사됨.
 주 3. 倭人以兵船百餘艘 襲東邊 進圍月城 四面矢石 如雨. 王城守賊將退 出兵擊敗之 追北至海口 賊溺死者 過半.
 주 4. 탈해왕 23년(79년), 일성왕 20년(153년), 점해왕 14년(260년), 내물왕 45년(400년), 효소왕 8년(699년) 경덕왕 23년(764년), 혜공왕 4년(768년), 흥덕왕 11년(836년), 경문왕 15년(875년).
 주 5. 기상청에 따르면 2001년 8월, 2003년 10월, 그리고 2005년 10월 22일 용오름 현상이 있었음.

인용문헌

1. 경주사학회(1984) 신라인의 발자취-대왕암에 이르는 길. 경주사학 3: 165-174.
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1997) 감은사 발굴조사보고서. 매일원색정판사.
3. 김부식(1145) 三國史記 李丙薰(譯註), 三國史記 上下. 서울: 乙酉文化社, 1983.
4. 박창범 라대일(1994) 삼국시대 천문현상 기록의 독자 관측 사실 검증. 한국과학사학회지 16(2): 167-202.
5. 신희웅(1986) 동해구 유적의 역사성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영동문화 2: 31-50.
6. 이강래(2004) 삼국사기의 왜 인식-신라사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사상사학 22: 1-43.
7. 이희승(1991)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8. 장삼식(1989) 한한대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9. 정영호(1992) 석굴 창건과 동해구 신라유적과의 관계. 정신문화연구 15(3): 53-66.
10. 황수영(1978) 석굴암본존 아미타여래좌상소고-신라동해구 유적과 관련하여-. 미술사학연구 136: 92-95.
11. 황수영(1989) 석굴암. 서울: 예경산업사.
12. 황수영(1993) 신라의 동해구. 서울: 열화당.
13. 황수영(1994) 신라 동해구의 문화유적. 문화사학 2: 39-51.

원 고 점 수: 2005년 8월 8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5년 9월 9일
 3 인 의 명 심 사 필